



◇광수사, 청계사, 연주암 불상에 핀 '꽃'. 승용차 차체에서도 발견됐다.(왼쪽부터)

'우담바라' 맞나?

청계사·연주암서 잇달아 발견...스님 승용차서도

3천년만에 한 번 핀다는 신비의 꽃 '우담바라'. 최근 경기도의 왕 청계사 극락보전 관세음보살상과 관악산 연주암 대웅전 석가모니불에서 발견된 '꽃'은 과연 '우담바라'인가.

청계사(주지 총상)는 관세음보살상에 21송이 꽃이 핀 것을 계기로 108일 무차정진대법회를 열기로 하고 17일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초청해 입제식을 거행했다.

17일 꽃을 발견한 연주암(주지 탄묵)도 꽃이 피어 있는 동안 기도를 드리기로 하고 27일 입제식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꽃이 경전에서 말하는 우담바라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전에 따르면, 신령스런 꽃인 우담바라는 매우 드물고 희귀함을 뜻할 때 비유로 쓰이는 가상의 식물이다.

〈법화경〉에는 "인도에 그 나무는 있지만 꽃이 없고 전륜성왕이 나타나면 꽃이 피고 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해림음의(慧琳音義)〉에는 "우담바라는 하늘꽃이며, 여래가 세상에 태어날 때 피고 이상적인 통치를 하는 전륜성왕이 세간에 표출하면 대복덕으로 말미암아 감득해서 이 꽃이 핀다"고 하였다.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이런 미묘한 법은 여러께서 때가 되어야 말하는 것이나, 마치 우담바라꽃이 때가 되어야 한 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고 했다. 〈일체경음의〉에서는 "상서로운 구름과 같이 하늘에 피는 꽃이며, 세간에 이 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인도와 스리랑카에서는 활엽수 한 종을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를 상징하는 꽃이라 하여 '우

담바라'로 부르고 있다.

97년 8월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고 홍보했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당시 총무원 홍보부는 근거도 없는 홍보에 불자들이 현혹되고 있다고 판단, 주지 동봉스님을 불러 경과를 조사하고 '우담바라 홍보 중지'와 사과문을 발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우리절 주지 동봉스님은 "확실히 않은 것을 바탕으로 우담바라꽃이라 홍보해 불자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힘으로써 당시 우담바라 소동은 마무리됐다.

올해 들어 불상에서 '신비한 꽃'이 발견된 것은 지난 8월 대전 광수사와 청계사, 연주암 등 세 번째다. 또 19일에는 울산의 한 스님의 승용차 차체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형태상 곰팡이류"
"우담바라 신드롬"
부처님 진리와 배치"

청계사 불상의 '꽃'을 살펴본 야생과 연구가 김태호박사는 "저러한 곳에 생물이 자랄 수는 없다. 목조건물이고 빌레도 없으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지만 꽃은 아니라고 본다"며 "형태상으로는 포자(곰팡이)종류이다. 하지만 현재 포자 종류중 이런 종이 보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우담바라' 신드롬에 대해 이근후교수(이대 의대 신경정신과)는 "현대인들은 늘 불안을 느끼면서 산다"며 "신비한 현상에 의문하여 불안을 씻으려는 무의식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증상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런 '우담바라' 신드롬은 부처님 진리와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군 종교 불균형 심각"

김태호의원 국방부 국감서 문제제기

군대내 종교시설이 특정 종교에 편중되어 있고, 장병종교현황에서도 타종교에 비해 군종법사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군내 종교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태호의원(한나라당 불자회장)은 19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로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장병들의 종교분포가 일반국민의 종교분포와 현저히 다르다"고 밝히고 "이는 근본적으로 군종정책과 종교시설의 불균형에 기인한 현상"이라며

균형있는 군내종교정책과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와 같은 불균형이 시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3천6백만명 가운데 불교인구 9백50만명(26.5%), 개신교 6백70만명(18.6%), 천주교 2백50만명(7%)으로 나타난 통계청 자료와, 육해공군 약 69만명의 군인 가운데 불교 15만2천명(25.3%), 개신교 31만2천명(52%), 천주교 7만8천명(12%)으로 나타난 국방부 자료를 비교할 때 그 편차가 심하며, 이같은

은 결과는 군대내 종교시설과 군종장교가 특정종교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방부 자료 중 현재 군내 종교시설물이 전체 종교시설물 1409동 가운데 불교가 384동(23.3%), 기독교가 899동(60.3%), 천주교가 243동(16%)으로 특정 종교에 편중되어 있는 사실과, 불교가 114명(23%), 기독교가 307명(61.7%), 천주교가 76명(15.3%)으로 나타난 장병종교분포도를 기준으로 볼 때 군승의 숫자가 적은 군종장교현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두식 기자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은 28일부터 11월19일까지 낙동강 도보순례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새만금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조계사 농성장에서 결의를 밝히는 순례단원들.

"새만금 개발 전면중단하라"

환경단체들 조계사서 밤샘농성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불교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200여개 환경·사회·종교단체들은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새만금농성 선포식'을 갖고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참여 단체들은 조계사에 설치된 천막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26일 동안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시위·

집회를 비롯해 100만인 서명운동, 새만금개발 살리기 쌀 사주기 운동, 기도회 및 촛불행진, 국제사회와의 연대 등의 행사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지리산 살리기·담백지화 범불교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문규현 신부 등이 참여했다.

김재경 기자

하와이 무량사 창건 25돌 기념 '교민과 함께'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 창건 25주년 기념 봉축 위원회(위원장 차운진)는 하와이 교민과 함께하는 축하의 장으로 22일 헌성 스님과 해설스님 초청 창건 25주년 기념 특별 수계법회를 거행했다. 또 24일에는 관소리 명창 김영옥 선생을 초청, 심청가 등 국악공연을 열어 하와이 교민들에게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느끼게 했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현대식 및 다도장'을 열고 교민과 현지인에게 전통 차문화 소개했다. 주지 도현스님은 "내년 개관예정인 한민문화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지 미국인 포교에도 앞장서는 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무량사는 한민문화원 건립 불사에 동참 할 국내불자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001-1-808-735-4679. 김원우 기자

구미 금오복지관 '학대아동 쉼터' 운영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동)이 '학대아동 쉼터' 프로그램을 마련, 이달 말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유기·방임·학대받는 환경에 놓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아동 쉼터'는 7~10명의 아동을 시설에 수

용해 학습 및 자연교육, 취미생활 등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과의 진화, 편지쓰기, 부모상담 등 아동과 가족간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금오복지관은 복지관 인근에 시설을 마련했으며, 12월6일 개소식을 갖는다.

금오복지관은 또 학대아동 상담 센터를 마련하고 학대아동 신고 접수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054)458-0230 한영우 기자

"종교언론 전문경영인제 도입"

언노련 토론회서 제기

최근 CBS의 파업 돌입과 순복음교회 장로들의 국민일보 경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종교언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문순)이 12일 한국방송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광호 서울산업대(언론학)교수는 '종교(재단)언론의 문제진단과 발전방향'이란 발제문을 통해 "종교언론은 선교(포교)매체이면서 언론매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일반언론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통제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종교언론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종교 내부의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단이나 사주, 사장이 일방적인 경영형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진

단했다.

종교언론사들이 안고있는 문제점으로 정치지향성과 권위유착, 재단의 지배구조 문제, 편집·경영진 문제, 임금체불 등을 지적한 김 교수는 "종교재단이나 소유주, 대리경영자들은 언론의 공공성에 관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며, 사주·사장에 의한 일부 종교언론사의 경영 황폐화와 관련 "경영자의 업무지시권이나 인사권은 편집·작성행위까지 미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소유주가 편집활동은 물론 경영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CBS와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인 최문순은 "종교언론의 경영실태를 발표하였으며, 김승수 전북대 교수, 최민희 민연연 사무총장, 임순혜 KNCC 언론위원, 조정진 세계일보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재경 기자

저시력인 연대 "꽃 싸게 사세요"

'사찰과 불자들에게 꽃을 재작해 드립니다.' 절명·사교·유전(약사) 등의 원인으로 손상된 시력이 회복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이 모인 전국저시력인연대(대표 미영순)가 꽃바구니, 꽃다발, 화분포장 등을 사찰과 불자들로부터 주문 받아 재작 판매하고 있어 화제다.

꽃을 재작하는 저시력인들은 시모두 6명, 재활교육과 취업을 위 조경진 세계일보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재경 기자

시작한 화환제작 교육을 받은 이들은 신심 돈독한 불자들에게 사찰과 일반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같은 일을 계획하게 됐다. 이들의 꽃 판매는 이익을 남기려는 영업체가 아니라, 꽃을 팔 경우 꽃값은 저시력인연대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꽃을 산 사찰이나 불자들에게는 후원금 영수증을 제공한다. 사찰과 불자들에게는 시중가보다 한 값에 꽃을 제공하고, 또 꽃을 산 사찰과 불자들은 저시력인들의 후원자가 된다.

꽃 판매를 시작한 지는 불과 일주일 전, 아직 홍보가 안돼 주문량은 적지만 이들은 오늘도 정성스레 꽃을 다듬고 한껏 모양을 낸다.

미영순대표는 "사찰이나 불자들의 꽃 주문은 저시력인들에 대한 후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불교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포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02)593-3396. E-mail: lowvision@thru.net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보타 센터

아보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아보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현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10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 11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12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방법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이다.

책자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연족 인재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령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